



<연세의대간호학과 4학년>

김 의 숙

### 서 론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4학년 내외과 간호학 시간에 책을 읽고 연구하는 태도와 report 쓰는 방법 등을 익히기 위해서 쓰게 된 것이다.

이 제목을 택하게 된 원인은 조그마한 간호원의 부주의와 무관심이 환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이 요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어느 오래된 마비환자에서 원태의 병보다는 이 요창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 간호원들이 좀더 요창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였다.

더구나 간호원이라면 누구나 다 인상적으로 흔히 당할 수 있고 또 그 원인과 치료가 다른 것과 달라서 간호원에 직접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요창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되었다.

### 본 론

#### 1. 간단한 해부 및 생리

우리 몸을 기능적인 단위로 나누

어 본다면 결국 원형질 (protoplasm), 세포 (cell), 조직 (tissue), 특수기관 즉 막 (membrane) 과 선 (gland) 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여기에서는 필요상 막 중에서 피부부분과 순환계통을 간단히 다루어 보기로 한다.

#### ① 피부 (skin or cutaneous membrane)

피부란 우리의 몸 전체를 싸고 있는 막으로써 표피 (epidermis), 진피 (dermis), 피하조직 (subcutaneous tissue) 그리고 그 부속 기관 즉 한선, 모발, 피지선, 조갑 (爪甲) 으로 나누어진다. 그 생리학적 기능을 보면

i) 구조에 있어서 단단한 각질층, 유두층과 탄력있는 망상층으로 되어 있어 외부 환경과 차단시켜 기계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skin surface film 과 barrier zone 을 가지고 있어서 bacteria 와 여러 가지 이온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 몸의 염증을 예방한다.

ii) 피하지방, 피부와 혈관의 수축과 이완 그리고 땀을 내어보내어 체온조절을 한다.

iii) 피부자체에의 조직면역으로 면역작용을 한다.

iv) 피지선과 지방이 털도(shaving)와 같은 역할로 때를 만들어 털어뜨리므로 청결작용을 한다.

v) 배설 작용을 한다. 이것은 신장의 1/500정도의 기능이다.

vi) Serous fluid, synovial fluid, mucus, 그리고 땀 등의 분비작용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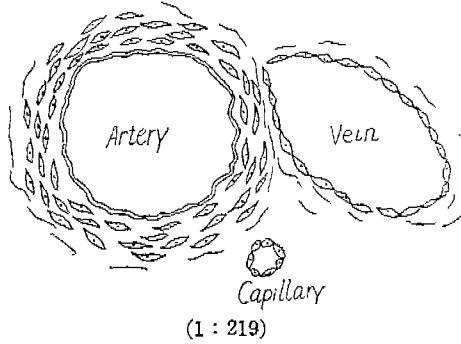
그러므로 만약 요창으로 피부가 벗어지고 괴저되면 그 부위의 생리학적 기능을 못하게 되므로 점점 깊이 염증이 되어 나중에는 조직까지도 또 심하면 뼈까지도 보이게 되는 수가 있다.

## ② 순환 계통(circulatory system)

이 순환계통은 신경계, 호흡계, 소화계, 비뇨계통과 더불어 우리 몸을 생리적으로 유지하게 하여 주는 계통으로 그 중심은 심장이다. 우리의 몸은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혈관을 통해서 피를 받아 새로운 운동을 할 수 있는 O<sub>2</sub>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통해서 운동함으로써 생긴 부산물을 보낸다.

심장에서 각몸으로 가는 피는 동맥혈관을 통해서, 각몸에서는 정맥혈관을 통해 심장으로 들어 간다. 또한 몸에는 구석구석에 실핏줄(capillary)가 퍼져 있어 어느 곳이나 혈액이 순환되게 되어 있다. 각 혈관

의 크기와 두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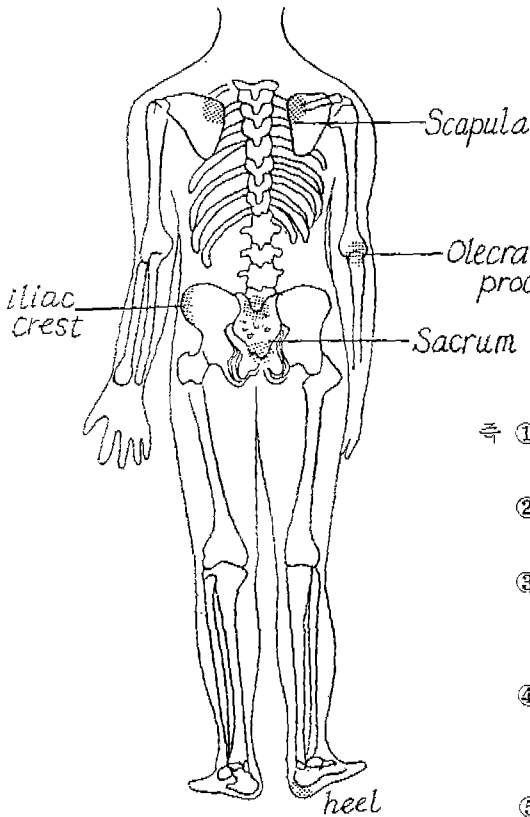
## II. 요창의 정의

요창 또는 욕창이란 학명으로는 “Decubitus ulcer 또는 그냥 Decubitus 라고도 하며 흔히는 bed sore 또는 pressure sore 라고 부르며 이 Decubitus 의 복수는 Decubiti 라고 한다” (2 : 286)\*

요창이란 그말 그대로 어떤 곳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지 누워 있다는 이유 만으로 피부가 빨갛게 되고 심하면 수포가 생기며 나중에는 괴저되어서 심한 경우에는 근육까지 브이는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병균이 감염되기 쉽고 결국에는 원인병보다 이 요창 때문에 더 고생하게 되는 수도 있다.

## III. 요창의 원인과 호발부위

요창의 주요 원인은 한가지로 말해서 어떤 부위에 계속적인 압박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 국소빈혈



<요창이 잘 생기는 부위>

이 되면 “혈액이 울혈 (congestion) 되어 산소와 다른 영양물이 그 부위의 세포 안으로 운반되어가지 못하고 또 그 부분의 부산물이 옮겨지지 못하므로 세포의 기능이 저하”(3 : 288)※되고 그 압력이 계속하여 주어 지면 나중에는 그 세포가 생리적 기능을 못하게 되므로 죽게 되어 괴저 (necrosis)가 생겨 요창이 된다.

그러므로 요창이 생기기 쉬운 경

우는

- i) 똑바로 누워 있는 자세로 오랫동안 누워 있을 때. 이 “back-lying position은 가장 많이, 또 여러군데에 압력을 주는 자세이다.”(4 : 288)※ 즉 똑같은 자세로 오래 누워 있거나 앉아있을 때
- ii) 피부에 계속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즉 ① 침요가 심하게 꾸겨져 있을 때

② 침대 안에 부스러기나 먼지 등이 많이 들어 있을 때

③ 침대 머리 말이나 옆에 물건들이 많아서 움직이기 힘들 때

④ 튜브를 꽂거나 arm board를 대었을 때 피부가 닿는 부위

⑤ 실금 환자이거나 땀을 많이 흘려서 피부가 언제나 젖어 있을 때

⑥ 환자가 너무 나이가 많거나 장기 환자이기 때문에 무척 몸이 약하고 영양상태가 나쁠 때

iii) 특수 질환인 환자의 경우.

심장병, 당뇨병 또는 신경계통의 병으로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기거나 열이 있거나 세포의 기능저하 또는 조직이 파괴되는 병이 있을 때 더욱

생기기 쉽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일어나므로 요창이 가장 잘 일어나는 부위는 “발꿈치(heels), 천골(sacrum), iliac spine, 대퇴상부돌기(trochanters), 견갑골(angels of the scapulae), 후두(occiput)”(5 : 36) · 팔꿈치(elbow), 미골(coccyx) 등이다. 이곳을 그림으로 표시해보면 전page와 같다.

#### IV. 요창의 예방

요창은 이와같이 어느 환자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간호원의 끊임없고 주의깊은 관찰만이 이것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늙은 환자, 신경계통으로 마비된 환자, 의식이 없거나 실금인 환자, 큰 수술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더욱 주의해서 관찰해야 한다.

기술적인 방법으로서 요창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좋은 영양은 요창의 예방과 치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환자는 적어도 2시간만에 한번씩 체위변경(position change)을 해 주어야 하며 실금 환자일 때는 피부가 언제나 마르고 깨끗하도록 돌보아 준다. 좋은 영양을 주기 위해서 늙은 환자의 경우에는 하루 세번씩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에 4~5번씩 조금씩 먹는 것이 좋고 탄백질이 많은 식사를 하며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계란—오렌지(egg orange), eggnog, 우유, 아이스크림

같은 고담백 음식을 먹는다. 환자를 체위변경하기 위해서 환자를 커다란 pad이나 draw sheet 위에 놓는다. (6 : 109)※

임상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1. 매일 침상 복욕을 해 준다.
2. 실금 환자일 때는 비누와 물로 닦고, 물기를 없애 주고 새 롤이블로 갈아준다.

심한 실금환자인 경우에는 “의사의 명령을 받아서 Foley를 끼어준다.”(7 : 287)※

3. 반롤이블이 늘 말라 있고 깨끗하고 구김살이나 부스러기나 먼지가 없도록 한다. (만일 고무포가 환자의 발한의 원인이 되면 고무로 위에 덮 요를 깔고 그 다음에 반롤이블을 덮는다.

4. 적어도 하루에 두번 알콜과 분가루로 등간호를 한다. 골 돌출부위는 더 잘 마찰을 해 준다. (만일 피부가 아주 건조하면 기름을 약간 발라줘도 된다.)

5. 자주 환자의 체위를 변경해 준다. 이 때는 반 롤이블을 이용해서 반롤이블로 잡아다녀서 환자를 들려 얹게 한다.

6. 환자에게 자기 몫 음식을 다 먹도록 권한다.

7. 압력이 주어지는 부위의 조기 증상을 관찰한다. (8 : 33)※

피부 간호를 하는 때에는 쓰는 물

들이 조금씩 다르나 그 원리는 마찬가지이다.

“면화씨기름(cotten seed oil)에 rubbing alcohol을 섞은 것이 좋은 back-lotion”(9: 37)※이며 이것은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땀띠지용 alcohol이다.

오테 누워 있는 환자에게는 boric acid 160gm, calamine 160gm, bismuth subcarbonate 320gm, starch 960gm, talcum2lb를 늘 준비해 두어서 등간호에 쓴다. 이런 가루는 너무 발라서 땀갈이 덩어리가 지지 않게 하며 이와같은 rubbing solution이나 dusting powder 사용 전에는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사용한다. 간찰부위는 비누와 물로 닦고 잘 말린후 rubbing solution은 사용하지 않고 가루만 약간 바른다. Alcohol은 너무 피부를 건조하게 하므로 10%라노린과 90% 식물성기름을 섞어서 약간 따뜻하게 하여 부드럽게, massage하던 혈액순환에 큰 도움을 준다. (10: 81)※

이와같은 가루분 대신에 녹말가루(cornstarch)를 사용하기도 하며 땀이 많이 나는 환자나 “신경마비 환자는 이런 powder 사용을 하면 땀과 합쳐서 오히려 피부 자극체가 되므로”(11: 643-644)※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신경계통에 병이 있는 사람은 1시간 마다 체위변경”(12: 653)

을 해 주어야 한다.

또한 “몸 아래의 압력을 전체적으로 고루 나누기 위해서 air foam mattress를 깔아 주거나”(13: 38)※ 특히 압력을 많이 받는 골 돌출부위에 스펀지나 양털가죽을 깔아 준다. “솜으로 만든 도넛(cotten doughnut)을 압력받는 부위에 대주지 말 것이며 커다란 공기를 넣은 고무링(air rubber ring)도 단지 짧은 기간에만 쓴다.”(14: 37)※

## V. 요창의 치료

요창을 편의상 3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즉 초기는 피부의 색깔 변화가 오는 시기로 그의 다른 증상을 볼 수 없을 때, 중기는 수포가 생기고 피부가 벗겨졌을 때, 말기는 괴저가 되어서 여러가지 분비물이 나오거나 이차감염이 생겼을 때이다.

### ① 초기 치료법

피부가 약간 붉어지고 에민(tender)해지며 손가락으로 눌러보았을 때 그 붉은 기운이 사라지면 이것은 홍반이나 울혈이 생긴 것으로 혈액의 공급은 완전하다. 그러나 색깔이 자색으로 되고 어두운 색을 나타내면 순환이 안되는 증거이며 곧 괴저가 오기 쉽다. 이와 같은 초기 증상은 아직 요창이라고 부르지는 않으며 그 치료법은 예방법과 같다.

그러나 색깔이 변한 부분에 그 부위를 굳히기 위해서 tincture of benzoin

을 바르면 좋고 등간호를 더 자주한다.  
압력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부위의  
간호 :

1. 매일 침상 목욕을 해 준다.
  2. 반흔이불이 늘 말라 있고 깨끗하고 구김살이나 부스럭이나 먼지가 없게 한다.
  3. 매시간 체위변경시키고 가능한  
면 그 부위에 압력이 가지 않게 한다.
  4. 스폰지를 압력이 주어지는 밑  
에 대준다. (솜으로 만든 것은 그 자  
체가 압력의 원인이 되므로 대주지  
않아야 한다.)
  5. 반창고를 바르지 않아야 한다.
  6. 적어도 하루에 3번 등간호를  
해주어야 한다.
  7. Heat lamp 에 그 부위를 노출  
시킨다. (15 : 33—34)\*
- “붉게 되면 곧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찬물로 씻고 alcohol로 mas-  
sage 하며 cotten pad 을 등이나 허  
리에 받쳐서 디딤돌 구실을 하게 하  
고 반창고를 붙이지 않는다.” (16 :  
38)\*

“너무 자주 대변을 보아서 빨갛게  
되면 항문 주위에 cold cream 을 발  
라 준다.” (17 : 80)\*

② 증기 치료법

수포가 생기거나 피부가 벗겨져  
진물이 나기 시작하면 2차 감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늘 깨끗이 해 주어  
야 한다. “과산화수소로 그 부위를  
깨끗이 씻어내고 그 주위에 Benzoin

tincture를 발라주고”(18:109-110)\*  
Vaseline 껌스를 붙이고 노출시켜  
놓는다. 등간호를 할 때는 상처난 곳  
에서 약간 떨어져서 등갈게 맛싸지  
한다.

분비물이 묻으므로 구멍 뚫은 스  
폰지를 깔아 주거나 짧은 기간동안  
air rubber ring 을 사용하게 한다.

이 air rubber ring 을 쓸 때에도  
봉대로 주위를 잘 감아서 될 수 있는  
대로 피부에 자극을 덜 주게 한다.



air rubber ring  
의사의 처방이 있  
으면 처방난 oint-  
ment 를 껌스에 펴서 붙여 주기도  
한다.

나머지는 초기 치료법과 같다.

③ 말기 치료법

요창이 이 시기까지 진전되면 낮  
은 속도도 아주 느리며 환자도 상당  
히 고생하게 된다.

상처가 이차감염이 안되었으면 생  
리식염수나 증류수로 깨끗이 세척해  
내고 과산화 수소로 닦아낸 후 마른  
소독 껌스로 말리고 처방난 oint-  
ment 를 발라 준다.

2차 감염이 되면 물에 묽은 비누  
를 타서 희석한 용액으로 상처를 씻  
어낸 후에 소독된 주사기에 생리식염  
수를 담아서 약한 압력으로 세척해  
낸 다음 껌스 sponge 로 말리고 외  
사 명령에 의한 ointment 를 껌스에  
펴서 그 부위에 붙인다. (19 : 38)\*

또한 이때는 light therapy 가 중요하다.

“100 watt 전구를 Cradle 에 달아서 24인치 떨어진 곳에서 10분간 쬐여준다.” (20 : 109—110) \* 이렇게 하면 그 부위가 완전히 마를 수 있고 자외선의 작용으로 2차감염도 예방할 수 있으며 따뜻해져서 순환작용도 도울 수 있다.

American Journal of Nursing 에 Walter Reed Army Institute of Research 의 간호과에서 연구한 것이 나와 있었는데 그 방법이 아주 새로운 것이어서 여기에 그대로 소개한다. 이 조사는 환자를 신경외과 (neurosurgical), neurological, orthopedic, cerebral, vascular disease, diabette mellitus, cardiac disease, arthritis 의 7가지 일반 진단 범위로 나누어서 또 그것을 0~19세, 20~39세, 40~59세, 60세 이상의 4 group 으로 나누어 환자간호 즉 피부 청결과 massage, 체위변경의 회수와 그 형태, 환자의 활동상황, 음식의 섭취와 배설, 식욕, 심장증세, 결사소견과 약물치료의 type 과 요창의 정도, 축 배설물의 양과 type, 감응정도, 부위의 색깔, 환자피부의 일반 상태, 삼출액의 PH를 가지고 요창간호의 결과를 매번 기록 연구한 것이다. 그 중에서 일부분을 소개하면 “요창에 대한 sugar treatment 의 연구”

① 설탕은 조직보다도 박테리아가 번식하는데 더 좋은 배양지이다.

② 그 박테리아는 설탕에서 번식해서 결국에 죽게 된다.

③ 조직내에 들어간 설탕의 높은 농도가 그 조직의 P.H.를 변경시켜 침범한 세균의 독성을 변화시킨다.

④ 그 농도가 높은 용액이 정상조직의 림프액의 흐름을 역전시켜서 좀더 많은 serum 과 영양소를 조직 내로 날라오게 하여 상처난 조직회복에 촉진제 역할을 한다.

⑤ 또한 granulation 조직에 자주 주어서 상처회복에 필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설탕안에 호소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이 granulated sugar 를 요창에 사용하면 4주에서 5주 또는 한 달 반만에 완전히 나올수 있다.

이것을 하는 방법은 먼저 과산화수소트 요창을 닦아낸 후 50% glucose 를 적신 거스를 요창 안에 집어 넣는다. 이것을 24시간에 4번 반복한다. 그결과 6명의 환자가 아주 빠른반응을 보였으며, 2명의 표면이 상한 신경마비 환자가 19~23일만에 상처가 아무는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후에 air mattress 를 썼고 소독약인 mercurial 과 iodine 용액을 사용하고 light therapy 와 체위변경으로 완전히 요창을 치료했다. 이 방법은 아주 쉽고 결과가 아주 좋으므로 간호원의 요창치료에 큰 공헌을 할 것

이다. (21 : 68-69)※

또한가치 Kaolin powder 를 사용 한 치료법이 있다.

요창과 그 주위를 따뜻한 물과 역 체비누로 씻고 난 후에 과산화수소로 닦은 후 말린 다음에 Kaolin powder 를 요창 안에 넣어준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덮지 않고 체위 변경만 2 시간마다 해주던 1~4주만에 낫는다. (22 : 72)※

아직 우리 병원에서는 cotten doughnut 을 많이 주는데 불꽃이 부족한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그 doughnut 을 만들던 좋겠다. 즉



이와같은 모양으로 한쪽 을 뒤서 그 트여진 부분이 혈관이 오는 방향으로 해주 면 순환도 계속될 수 있고 요창도 직접 닿지 않으므로 빨리 나올 수 있다.

또한 이차감열이 되어 구멍이 뚫 어지고 지저분해지면 면봉을 사용해서 과산화수소로 속까지 닦아낸 다음에 forcep 으로 그 주위의 지저분 한 것을 빼어낸다. 그리고 요창은 그냥 열어놓아서 마르고 공기가 통하 는 것이 좋다.

요창이 여러 군데 생긴 사람은 care plan 을 세울 때 요창간호에 대한 것 너 포함해서 체위변경과 dressing 을 잘 해줄 것이다.

요새는 잘 안쓰는 방법이지만 옛날 에는 펍 많이 사용했던 튼밥사용법 이 있다.

깨끗한 흙이불 위에 새 튼밥을 놓고 신문지 위에 흙이불을 놓아 적어도 2시간 햇볕에 말린 후 침상 위에 튼밥이 있는 흙이불을 놓아서 상처부 위가 직접 튼밥에 접하도록 한다. 더러워진 튼밥은 매일 치워 깨끗이 한다. 손가락으로 잘 저어 튼밥을 고무 편다. 7~10일마다 튼밥을 완전히 바꾼다. 이 튼밥을 사용할 때 상처세척은 하루에 3번하고 dressing 은 하지 않는다. (23 : 34)

또 가능하면 직수환자들이 쓰는 구멍뚫린 침대 즉 Styker flame 을 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

### 결 론

위에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했지만 결국 간호원의 끊임없는 주의와 노력으로 환자의 체위변경과 압력 부위의 간호로써 쉽게 예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원은 보호자와 환자에게 잘 설명하여 서로 협조 해서 요창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인이 요창치료를 여러번 시도해 본 결과 sugar treatment는 생각도 좋고 결과도 좋았으나 glucose 가 쉽게, 싸게 구할 수가 없고 환자에게 처방을 내야 하는데 Dr.들을 이 해시키는데 힘이 들어 결국 한 case 밖에 써보지 못했다.

한쪽이 터진 doughnut 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듯 했고 고무로 위에는



담요나 솜을 잘라서 흡수가 잘 되게 하고 창구를 밖아내는데 과산화수소를 썼더니 훨씬 회복되는 기일이 짧았다. 그래서 이 방법은 좋은 방법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속하여 보다 나은 예방법과 care에 대하여 연구해 보는 것은 환자 간호에 의의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Foot Note

1. Anthony, Catherine Parken<sup>\*</sup> B.A., M.B., R.N. **Textbook of Anatomy and Physiology**; p 291
2. Fuerst, Elinor V. **Fundamental of Nursing**; p 286
3. Ibid, p 288
4. Ibid., p 288
5. Brown, Amy Frances. **Medical Nursing**; p 36
6. Stilwell, Elizabeth Jones. "Pressure sores," **American Journal of Nursing**, Vol.61, No. 11(nov., 1961) p 109
7. Fuerst, Elinor V. **Fundamental of Nursing**; p 287
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기초 간호학 p 33
9. Brown, Amy Frances. **Medical Nursing**; p 37
10. Ibid., p 81
11. Ibid., pp 643~644
12. Ibid., p 653
13. Ibid., p 38
14. Ibid., p 37
1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기초 간호학 pp 33~34
16. Brown, Amy Frances. **Medical Nursing**; p 38
17. Ibid., p 80
18. Stilwell, Elizabeth Jones. "Pressure sores," **American Journal of Nursing**, Vol. 61, No. 11(nov., 1961) pp 109~110
19. Brown, Amy Frances. **Medical Nursing**; p 38
20. Stilwell, Elizabeth Jones. "Pressure sores," **A.J.N.** Vol.61NO. 11 pp 109~110 (nov., 1961)
21. Verhonik, Phyllis J. "Decubitus Ulcer Care," **A.J.N.** Vol. 61 No.8 pp 68~69 (Aug., 1961)
22. Flood, Margaret J. "Decubitus Ulcer and Kaolin Powder," **A.J.N.**, Vol. 61 No.12 p 72(Dec., 1961)
2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기초 간호학 p 84

#### 참고 서적

1. Anthony, Catherine Parken B.A., M.B., R.N. **Textbook of Anatomy and Physiology.**
2. Brown, Amy Frances. **Medical Nursing**
3. Verhonick, Phyllis J. "Decubitus Ulcer Care," **A.J.N.**, Vol. 61 pp 68 ~69 (August, 1961)
4. Flood, Margaret J. "Decubitus

- 
- Ulcer and Kaolin Powder”, **A.J. N.**, Vol. 61, p 72 (Dec., 1961)
5. Stilwell, Elizabeth Jones: “Pressure sores” **A.J.N.**, Vol. 61, pp 109~110 (Nov., 1961)
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기초 간호학 pp 33~34
7. Fuerst, Elinor V. **Fundamental of Nursing** pp 286~288
8. Shafer, Kathleen Newton. **Medical-Surgical Nursing** p 733
9. Price, Alice L. **The Art, Science and Spirit of Nursing.** pp 120~122.

## 새해에 바라는 것



Days come and go so rapidly that one can only react with surprise to the realization that another year is gone. With this realization comes the need to contemplate the promises of a new year, and the desire to make plans that will bring about the fulfillment of these promises.

Abraham Lincoln is credited with having said, “We cannot escape history.” As we reflect on our particular role in life and the goals we have set for the coming year it is wise to consider these goals within the framework of our total environment. What impact will these goals have not only on our personal success, but on the segment of society with which we deal, and if in even only a small way on the total world picture.

As nurses of Korea reflect on

the history recorded in 1967 and look forward to the promises of 1968 we have much about which to be encouraged. Even though our country is small, the advances made here and the contributions made by Korean nurses serving in foreign countries can not help but show an ever-widening circle of influence.

Geoffery Anderson, former president of Loma Linda University in California once said, “The recorded story of this world is a small segment of eternity. Our relationship within history will determine our place in eternity.”

May the opportunities awaiting each one in the new year be so utilized that Nursing in Korea will have earned an honorable place in history.

진순애 <서울 위생병원·간호원장>